

3D입체 전시장 360도 공간 이동하며 작품 관람

부산비엔날레·대전비엔날레 등
코로나19시대 대형미술축제 잇단 개막
VR 영상 도입 등 온라인 콘텐츠 확대
여수국제미술제는 오프라인 전시 개막



5일 개막한 부산비엔날레는 온라인 전시를 강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2020 부산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만나는 온라인 콘텐츠. <부산비엔날레 제공>

세계 각국의 미술 축제들도 코로나 19를 피해가지 못했다. 베니스비엔날레 등 대표적인 행사들이 올해 열리지 못했으며 광주비엔날레 역시 내년 2월로 개막을 연기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비엔날레 행사 중 부산비엔날레가 온라인으로 우선 막을 열었고, 대전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등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또 비엔날레는 아니지만 여수국제미술제 역시 관람 인원을 제한하며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 중이다. 각 행사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던져준 속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출발했다. 문화예술 수용과 향유에 관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문화예술계가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0부산비엔날레는 코로나 시대, 대형미술축제가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줄까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테마극 출신 야콥 파브리스우스 전시감독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를 주제로 오는 11월8일까지 65일간 열린다. 34개국 90명의 시각예술가, 소설가, 시인, 사운드아티스트가 참여한 이번 비엔날레는 메인 공간인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영도 전시장, 부산 원도심 등 3곳에서 열린다.

부산비엔날레는 일단 개막식은 온라인으로 진행, 유튜브 공식 채널 등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야콥 파브리스우스 전시감독이 3곳의 전시장을 돌며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 공개했다.

6일 현재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13일 까지 연장되면서 오프라인 관람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와 맞닥뜨렸지만 돌파를 결정한 부산비엔날레는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본 전시관 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3D입체 전시 등 온라인으로 전시를 공개 중이다. 5일 오픈한 영도 3D입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이 360도 촬영된 공간을 이동하며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장의 도슨트를 대신할 오디오 가이드도 준비했다. 나머지 전시장의 영상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개한다.

이번 전시의 특색은 문학가, 음악가의 적극적인 참여다. 전시의 출발이었던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부산 시인 목소리로 녹음 돼 현재 오디오북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제공되며 참여 음악가의 음원도 무료 공개 중이다. 그밖에 전시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8일에는 2020대전비엔날레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다.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알고' (12월6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6개국 16명(팀)의 작가가 참여해 우리 생활의 필요요소가 된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역시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대전비엔날레 역시 강화된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먼저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전시 소개 뿐 아니라, 전시 가이드북 전자책 무료 제공, 디지털 트윈 전시, AI 도슨트 앱 등 새로운 디지털 전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해외 작가와 작품 데이터를 전송받아 원격으로 전시·설치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과정은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전시에는 치안 이론을 모티브로 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히토 슈타일의 '깨진 장문들의 도시', 온라인에서 메

시아 이미지를 학습한 인공지능경망이 생성한 이미지를 예 배당의 대칭적 공간 배치로 선보이는 라이만 터비스의 '전망이 있는 방' 등이 공개된다.

4일 여수에서 개막한 여수국제미술제는 오는 10월5일 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해제(解題): 금기어'를 내세운 주제전에는뱅크시, 신미경, 정지성 등 국내외 작가 46명(팀)이, 참여전에는 지역 작가 41명(팀)이 참여한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올해부터 이름을 바꾼 진행되는 여수국제미술제는 전시 공간이 엑스포가 열렸던 박람회장이었던 점을 감안, 방역과 관람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 중이며 온라인 콘텐츠도 강화했다.

그밖에 오는 17일 개막해 46일간 성산아트홀, 용지공원(포정사) 일대에서 열리는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소리, 바람, 흙, 돌, 빛 등을 끌어들이며 비조각 개념을 성찰하게 만드는 30개국 90여 명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당초에는 오프라인 위주의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VR 영상 도입 등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해 행사를 꾸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위드 코로나, 랜선 안부 묻고 반려식물 나눠주고

광주여성재단, 여성가족친화마을
비대면 마을돌봄 사업 개발 운영

광주시 여성가족친화마을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마을돌봄 사업을 개발, 진행 중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시와 함께 여성가족친화마을 전문컨설팅단을 운영, 코로나 시대에 마을 특색을 살린 활동 방향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 휴교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아동이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돌봄이 급증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비아까망이작은도서관은 마을돌봄 활동가들이 랜선 안부 묻기를 비롯해 책 읽어주고 만들기, 전래전통놀이, 토담공예, 종이접기, 보드게임 등 온라인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이웃과 교류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다.

첨단2제일공경채임주자대표회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통해 버섯키트, 공기놀이, 손젤리비누만들기, 쿠키만들기, 보드게임 등 놀이 및 체험도구 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큰나무공동체 오색종이작은도서관은 마을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배포, 온라인을 통해 반려식물 가꾸기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어르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동구&동아s와 남구주민회의는 간식꾸러미를 제작해 가정과 기관에 배당하기도 했다.

여성가족친화마을은 또 양육자꾸러미, 간식꾸러미, 반려식물꾸러미, 가족놀이 체험키트 등을 제작해 지원하고 있으며, 천마스크, 마스크 분실 방지 목걸이, 향균 비누, 가족체험꾸러미 등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을 제작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친화마을'은 마을 사랑방을 여성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육아, 돌봄을 공유하는 등 여성이 주체가 되는 마을 공동체 만드는 프로젝트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비아까망이작은도서관에서 마을돌봄 활동가가 온라인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김탁환 작가 신작 출판 기념 북토크

12일 수원지구 동네책방 '숨'

'큰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씩씩 떠온다' 김탁환 작가의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 출판 기념 북토크 '도시소설가, 농부과학자를 만나다'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수원지구 동네책방 '숨'에서 열린다.

신작 에세이 '아름다움은 지키는 것이다'는 소설에 맞서는 벗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책이다. 작가가 발품을 팔아 전국의 마을을 샅샅이 돌며 쓴 르포형 에세이다. 특히 책을 쓰기 위해 작가가 가장 많이 간 곳은 2만8000명의 인구를 거느린 곡성군이다.

이번 북토크에는 농부 과학자 이동현이 함께 이야기를 풀어간다. 고흥 출신 이동

현은 곡성에서 발아현미를 연구하고 가공하는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을 15년째 이끌고 있는 기업가이자 미생물학 박사다.

책을 쓰기 위해 작가가 전국의 마을을 누비며 맞닥뜨린 주제는 '소멸'이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순간 소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자각한다. 이러한 고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 이가 바로 '미실란'의 대표 이 박사다.

김 작가와 이 박사는 이번 북토크에서 결과에 만족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내어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공존을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묻는 이들에게 "다르게 아름답고 다르게 진실할 때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향·차로 만나는 명상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제선원 8일부터 두달간 매주 화요일 강좌

"향과 차로 만나는 명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참선과 명상을 위한 수행도량' 광제선원(선원장 보명)이 향과 차를 이용해 명상을 익히는 대중 강좌를 오는 8일 시작한다.

광제선원(광주시 서구 양동 283)의 향과 차 수행모임인 심향이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일상에서 명상하기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8주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7시 하루 두차례 진행된다. 선좌승 12명.

이번 강좌는 삶속에서 확대되는 명상문화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봄기를 1년에 두 번 세 기수를 모집할 예정이다.

첫날 명상의 원리를 시작으로 향과 차로 어떻게 명상에 들어가는지, 향으로 명상하기, 차로 명상하기의 강좌가 이어진다. 또한 생활에서 명상 확대하기, 삶으로 명상 확대하기 등 이론과 실재를 두루 경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특히 향과 차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참선에 드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활속 명상'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아울러 참선의 첫단계부터 시작해 명상의 생활화, 향과 차가 연계된 공부를 할 수 있게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강좌 지도법사인 광제선원장 보명님은 "참선이 생활화되면 삶이 안정되고 관계성이 건강해져 결국 세상이 평안해진다"며 "참선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한편 광제선원은 지난 8월부터 매일 첫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글 대강경 독송법회와 세계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도량참법기도를 진행한다. 문의 062-365-1040, 010-9191-968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 style="text-align: center;">웅추해신삼계탕</p> <p>북구 저불로93(웅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p style="text-align: center;">매산철거·삼보소개소</p> <p>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모래운반·폐기물처리, 고철 파지·스텐·특수파망, 조적·방수·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p style="text-align: center;">대 연 건 설</p>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강·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p style="text-align: center;">머리해요(미용실)</p> <p>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암 개업할인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펌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p>
<p style="text-align: center;">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 style="text-align: center;">명품웃수선전문점</p>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분위기 ☎ 010-2474-1457</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광 세 탁 소</p> <p>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p style="text-align: center;">새서림 떡방앗간</p> <p>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p>
<p style="text-align: center;">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 style="text-align: center;">약초당건강원</p>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담발즙·침즙·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철(仁喆)익스프레스</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 style="text-align: center;">일번지식당</p> <p>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도로변) 흡연소방, 특대기요리당,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떡볶이, 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p>
<p style="text-align: center;">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식당</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신 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 style="text-align: center;">어주민물장어탕</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p>
<p style="text-align: center;">명품크리닝 전문점</p> <p>서구 치평동 275-22(우리동병원옆) 명품스커트·운동화·가방·캐주얼·염색·복원·수선일체 주인 직접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p>	<p style="text-align: center;">석 당 화 랭</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 style="text-align: center;">초 대 화 랭</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 style="text-align: center;">박 당 화 랭</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